

국가예방접종 비축백신 “Tdap” 신규 선정

- Tdap 백신 수급불안 상황 발생 시 안정적 공급에 활용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「감염병관리위원회」를 개최하여, “Tdap”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비축백신으로 신규 선정('23.6.2.)한다고 밝혔다.

“Tdap” 백신은 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를 예방하는 백신으로, 지난해 하반기에 수급 불안이 발생한 바 있다.

백신 비축은 「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('18.7월)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,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입 의존도, 대체백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비축 대상백신 및 목표량(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통상 3개월분)을 결정하고 있다.

한편, 질병관리청은 백신 공급중단 등 비상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'19년부터 피내용 BCG(결핵 예방), MMR(홍역, 유행성이하선염, 풍진 예방) 및 PPSV(폐렴구균 예방) 백신을 우선적으로 비축해 오고 있으며, 이번에 Tdap 백신이 추가로 선정(비축목표량:9만도즈)되었다.

< 국가예방접종백신 비축현황 >

구분	피내용 BCG	MMR	PPSV	비고
비축수량	5,000vial * 최대20명 접종가능/1vial	53,100도즈	37,800도즈	비축기간 : '19~'22년

질병관리청은 비축된 백신을 수급불안 발생 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으로, 국가예방접종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의료안정예방국 백신수급과	책임자	과 장	박준구	(043-719-68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홍	(043-719-6812)